

익산 모현 옥창지구 새뜰마을 선정

익산시, 사업비 42억원 확보... 공·폐가정비·도시가스 공급 주거 인프라 구축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모현동 옥창지구가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모현동 옥창지구 주변에서 추진 중인 재난관련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 끝에 현장사업평가 평

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공모 준비를 위하여 대상지 사전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구성, 협약서 체결 등을 거쳐 지난 2월 공모를 신청했으며 3월 초에 서면평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3월 말 국가균형발전위원

회, 국토교통부, LH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42억원 중 국·도비 33억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가운데 하나로 낙

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안전위험 해소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 모현동 옥창지구가 이번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80%를 보조받아 도시가스 공급, 소방도로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수협 김종남 조합장 취임식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수협 만들자”

김종남 군산수협 조합장 취임식

군산시수협 제18대 김종남 조합장 취임식이 최근 수협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 조합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각계 인사들과 군산시수협 임직원 및 조합원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남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를 통해 성원해 준 조합원들의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합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수협의 재건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모든 역할을 다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어업인의 경

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지역특성 에 맞는 특산물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사업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투명경영과 고부가가치 경영을 통해 군산시수협을 명실 상부한 최고의 수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으며 선의의 경쟁을 보여준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면밀하게 검토해 화합의 자세로 실천하겠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진정심으로 조합을 위한 일꾼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최고의 수협을 만들어보자”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창의적 지역현안문제 해결... 군산시, ‘브레인 스토밍’ 추진

군산시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브레인 스토밍’을 추진한다.

브레인 스토밍이란 어떠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낼 때 3인 이상이 모여 제각기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의견을 내는 회의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중

정량평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추진했다며 이 기간 동안 25개 부서의 담당계장 및 담당자 101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주제로 정량평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정량지표에 대해 체계적인

추진방안과 초기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복도가 해당 지표를 사전점검에 목표값의 과다 설정과 실정에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 전복도에 적극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지자체 합동평가 중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지표 담당 부서 18곳을 방문해 업무 연찬을 실시

한 바 있다.

시는 올해 말 지자체 합동평가 전라북도 결과 통보 기준에 따라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장 평가 시 부서별 가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정이 필요할 현실로, 작금적 행정이 필요하고 지표 매뉴얼을 숙지하여 전 북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표별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제역·AI 평시방역체계 전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방역체계를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했다.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조기에 설치 운영함은 물론 거점소독초소 3개소 왕궁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전면적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힘써왔다.

또한 가금농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내 양계농가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오리 사육농가 3개소에 대하여 자체예산 67백만 원을 투입해 입식을 제한했다.

축산과 방역차량, 축협 공동방재단을 이용하여 철새 도래지(만경강, 금강)소독에 만전을 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평시방역체제로 전환되어도 철새도래지,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방역취약지역과 중점방역관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향후형성물이 미흡한 농가를 집중 지도 점검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9억 원(총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용포와 함다, 용머리권역, 두 동천백마을 등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와 현재 운영 중인 6차산업경영체의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생태자원과 연계하여 농촌체험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다.

사업 선정으로 4년 동안 총 70억 원이 투입되어 서동 농촌테마 공원에

농촌자원공유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거점으로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농촌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지역 중·소농의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달리 해당 시?군의 농촌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형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 군의 자율성을 크게 부여한 사업이다.

특히 기획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

지 익산시의 마을만들기협의회, 농촌 활력지원센터 등 농촌 민간조직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권역지구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로 활력 있는 농촌이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농촌의 민간조직과 공모사업 선정에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전북지역 농해수위 위원인 정운천, 김중회 국회의원과 김수홍 국회의원(차관)의 협조에도 감사를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오색찬란한 보석 한 자리’... 내일 2019 보석대축제 개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을 만나 볼 수 있는 ‘2019 보석대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주얼팰리스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60여개의 보석 전문 업체들이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 특별 할인행사(24K, 다이아몬드 제외)도 진행되어 보석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속 봉황 뭉치 깃털이

세밀하게 표현된 영친왕비 봉황비녀 재현 작품과 전통장신구 소장품 전, 창작 귀금속보석 작품들이 전시되는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전(Thema : Re-born)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 되어있다.

보석박물관에서 진행되며 개인소유 보석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보석 리세팅, 귀금속 장인과 함께하는 보석가공 체험 프로그램, 주말 상설공연도 마련된다.

익산 시티투어버스는 익산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간격으로 7회 운영되며 자세한 운영 시간표는 익산

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재규 주얼팰리스협의회장은 “귀금속 장인들이 창작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주얼리 작품들을 마주하고 교감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연인,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보석대축제가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현장 확대간부회의 시정 발전방안 모색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1일 삼기 제 3간단에 위치한 패션주얼리 R&D센터 회의실에서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 소 단 장,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개의 핵심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우순 익산시 패션주얼리 R&D센터 연구실장의 현황보고, 부서별 현안사업 보고 및 토론,

정현을 익산시장의 당부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4~5월에 우리 시에서 서동축제, 소년체전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 놀이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아동친화도시 군산시가 관내 초등 학교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인성지도사, 안전지도사강사로 구성된 놀이 활동가가 투입된다.

시범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놀이 활동가가 파견되는 놀이교실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1일부터 동초등학교 1~3학년 10개 반에 놀이활동가를 파견하여 감

각놀이, 상상놀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10회씩 진행한다.

첫 수업은 ‘어린이 팝아트’를 찾아 고추줄놀이와 자연물 놀이수업과 광장을 찾은 시민과 놀이를 즐기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놀이수업을 통해 어린이의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바른 인성과 사회적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